



식품업계  
가성비·참여형  
제품 러시  
니



Life

재계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물품 등 지원  
L4



## 자연 담은 독창적인 가구로 ‘설렘 가득’ 침실을

### 현대리바트

#### 버밀리온

천연가죽·원목으로 고급스러움 더해

현대리바트가 프리미엄 브랜드 ‘리바트 마이스터 컬렉션’의 침실가구 신제품 ‘버밀리온’을 출시했다.

버밀리온은 침대·1인 패브릭 소파·협탁·서랍장·거울로 구성된 하이엔드 침실 가구 라인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주홍빛 절벽인 ‘버밀리온 클리프스(Vermilion Cliffs)’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으며 원목과 천연가죽을 사용해 디테일과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버밀리온은 현대리바트가 ‘고객에게 두근거림과 설렘을 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출시한 첫 제품이다.



버밀리온 침대는 헤드보드에 색상과 텍스처가 각기 다른 3종의 패브릭을 레이어드로 적용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1인 패브릭 소파는 역시 서로 다른 4종의 패브릭을 사용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협탁은 자연의 형상을 구현한 포인트 디자인을 상부면에 적용했고, 수작

업으로 제작한 원목 다릿발은 밀도가 높고 튼튼한 물푸레나무(에쉬원목)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현대리바트의 기술력은 프리미엄 가구 개발 연구실 ‘마이스터 랩’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마이스터 랩은 45년 경력의 소재별 전문가들이 모여 제품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친환경 인증에 미끄럼 방지도 아이·반려동물 안전까지 ‘책임’

### 현대L&C

#### 참다움 2.0

바닥재 두께·디자인별 18종 선택

현대L&C가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는 봄 시즌을 맞아 친환경 바닥재 신제품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주거용 바닥재 신제품 ‘참다움(The Charmdaum)’을 업그레이드했다. 참다움은 기존 1.8mm 제품에 2.0mm 제품을 추가하며 참다움 1.8과 2.0으로 브랜드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두께와 디자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컬렉션은 중소형 평형대에 최적화된 밝은 컬러와 대형 패턴에 따라 총 18종으로 구성했다.

참다움 1.8은 트렌디한 감성을 반영한 스톤 패턴 3종과 우드 패턴 9종을 포함한다. 대표 제품으로 화이트 콘크리트 질감을 600mm 크기의 대형 패턴으로 구현한 ‘허니 트래버틴’, 잔잔한 스톤 알갱이가 퍼진 콘크리트 테라조 패턴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스트 스톤’이 있다.

참다움 2.0은 클래식한 스타일의 스톤 패턴 2종과 우드 패턴 4종으로 구성되어 공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연출하는



시트 바닥재 ‘참다움’을 적용한 모습.

데 적합하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패턴이 특징인 ‘돌체 스톤’과 ‘테디 스톤’은 600mm 크기의 대형 사이즈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며, 우드 패턴은 스테디셀러인 90mm 폭을 주로 적용해 밝은 톤인 ‘서울 오크’부터 미드 톤인 ‘홀리데이 트리’까지 다양한 컬러 옵션을 제공한다.

아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기능성도 갖췄다. 마른 바닥과 젖은 바닥 모두 표면 미끄럼 저항성 테스트를 거쳐 미끄러짐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참다움은 전 제품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비롯해 대한아토피협회의 추천 제품 인증, 국제공인시험기관 FITI 시험연구원을 통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도 검증 받았다.

## 편한 보행감, 세련된 디자인... 공간 살리는 바닥재

### LX하우시스

#### LX Z:IN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

우드·스톤 등 23종... 친환경 인증도

LX하우시스가 봄 성수기를 맞아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LX Z:IN(LX 지인)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은행목·뉴청맥)’를 추천했다.

LX하우시스가 최근 리뉴얼해 출시한 ‘시트 스탠다드’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시트 바닥재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리뉴얼 신제품은 발포 쿠션층을 새롭게 적용해 더욱 편안한 보행감을 확보하고 세련된 우드·스톤 등 최신 인기 디자인을 추가한 23종으로 출시했다.

특히, 기존 대비 약 1.5배 크기가 커진



LX지인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

디자인 패턴은 천연 석재와 원목의 수려한 무늬를 그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도록 연출한다.

여기에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도 한 ‘세라믹 스톤’ 패턴은 기존 제품과 달리 이음매 디자인 없이 마치 한 장의 시트

로 전체 바닥을 시공한 듯한 디자인의 ‘올오버(All-over)’ 타입으로 출시해 최근 유행하는 미니멀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다.

‘시트 스탠다드’는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감소·생활환경오염 감소 등을 사유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성을 입증했다.

‘LX Z:IN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를 비롯한 LX Z:IN 브랜드의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실제로 살펴보고 싶다면 가까운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에 방문하면 된다.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는 대형 리모델링 전시장으로 주요 제품을 적용한 주거공간 타입 전 시공부터 개별 제품의 특징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자재 라이브러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테리어 조화를 이룬 구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 “바닥·벽 동일 패턴으로 우아한 무드 연출하세요”

### 동화기업

#### 진 그란데 스퀘어·시그니월

친환경 소재에 뛰어난 내수성 특징

동화기업의 건강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선보인 강마루 ‘진 그란데 스퀘어’와 벽재 ‘시그니월’은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공간을 한층 고급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제품이다.

진 그란데 스퀘어와 시그니월은 석재 특유의 색감과 결을 그대로 담은 8개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두 제품이 같은 패턴을 공유해 바닥과 벽을 같은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어 함께 시공하면 더욱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



진 그란데 스퀘어와 시그니월.

진 그란데 스퀘어는 가로 폭이 넓은 광폭 제품이다. 규격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형태로 총 2종류가 있다.

각각 ▲폭 650(mm), 길이 1220(mm), 두께 7.5(mm) ▲폭 650(mm), 길이 650(mm), 두께 7.5(mm)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을 적용했다.

진 그란데 스퀘어는 동화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소재인 나프보드로 제작했다. 내수성이 뛰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 놓여도 제품 변형이 적다. 원목이나 합판마루와 비교했을 때 찌름과 긁힘에도 강해 마루 설치 이후에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시그니월은 일반 나무 벽재보다 3배 이상 큰 대형 규격으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다. 시그니월은 폭 1010(mm), 길이 2460(mm), 두께 9(mm)로 출시했다. 시그니월은 벽재 날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 시공 후에도 외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벽면 모서리 설치 전용인 즐리컷 타입을 마련해 인테리어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했다. 즐리컷은 두께 단면을 사선으로 자르는 형태를 말한다.

## 내구성으로 아파트 수명 지키고 맞춤 컬러 디자인으로 취향저격

### KCC

#### 숲으로 듀러블

은폐력·색채 보존력 뛰어나

KCC의 고기능성 수성 페인트 ‘숲으로 듀러블’은 실리콘 변성 아크릴 에멀전 수지를 적용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덕분에 콘크리트 외벽이 공기 중의 탄산가스나 산성비로 인한 균열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KS규격의 수성페인트와 비교하면 은폐력과 색채 보존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탈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방수 기능까지 갖춰 콘크리트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한다.

KCC는 컬러디자인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 브랜드 매뉴얼 컬러를 분석하고 개발하며 제도장 컬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입주민이 투표로 선정하는 제도장 컬러 디자인에서 KCC의 선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KCC가 제공한 색채 디자인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또한, KCC는 신축 아파트 컬러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한 ‘리액트 VOL. 7’을 발간해 외부부터 내부, 주차장



KCC의 고기능성 수성 페인트 ‘숲으로 듀러블’을 적용한 이안광주첨단 아파트3 전경.

지 다양한 공간의 우수 사례를 제시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KCC의 디자인 역량은 단순한 색상 제안을 넘어 입주민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장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감각적인 색채디자인과 고기능성 페인트 개발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되는 유니버설 컬러디자인에도 힘을 쏟고 있다.

컬러 유니버설디자인(CUD)은 다양한 색각 인지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디자인으로, 적색맹이나 녹색맹을 가진 사람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도장 분야에 특화된 전문팀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